

VISION & CHANGE

2 0 1 0 - 2 0 1 4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ON & CHANGE

2 0 1 0 - 2 0 1 4

대학발전 주요지표



04

교육



1.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개선 07

미래교육 비전 제시
학사제도 개선
교수임용제도 개선
교육기반의 개선

2. 입학전형의 개선 11

공교육 정상화 기여
열린 입학전형
입학전형의 간소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
전공안내 및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3. 교육환경 개선 14

SNU 희망장학금 조성
새내기대학 운영
졸업후 진로모색 프로그램 다양화

4.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17

글로벌 인재 유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연구



1. 기초학문 진흥 21

기초학문분야 지원·육성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2. 연구역량 강화 22

미래연구 지원 강화
다학제적 개방형 연구토대 구축
BK21플러스 사업 유치
기초과학연구원(IBS) 외부연구단 사업 유치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연구기반 확충

3.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25

연구비 수주 증가
특허 보유 증가

4. 연구윤리 강화 26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 강화
연구윤리 교육 강화

5.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27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빅데이터연구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방법연구소
응용물리연구소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

6.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30

창의선도연구자 선정 및 유망 신진학자 지원

사회적 책임



1.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 31
글로벌 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화
국내 공헌활동 실천
2. 지식 나눔 ————— 33
온라인 강의 개방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교육소외지역 미래인재학교 운영
3.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 36
지역균형선발전형 및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실시
4. 학내 인권 증진 ————— 37
인권 증진 체제 구축
인권 교육 강화

기반 구축



1.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 39
법인체제 전환 및 시스템 개선
행정정보화를 통한 장기발전 역량 확보
소통 활성화
2. 지속가능한 재정기반구축 ————— 42
국고출연금의 확대
발전기금의 확충
재정시스템의 개선
3. 교육 및 연구시설 개선 ————— 48
관정도서관 신축
교육·연구시설 신·증축 및 캠퍼스 환경개선
편리한 e캠퍼스 이용환경 조성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멀티캠퍼스 추진
직장 보육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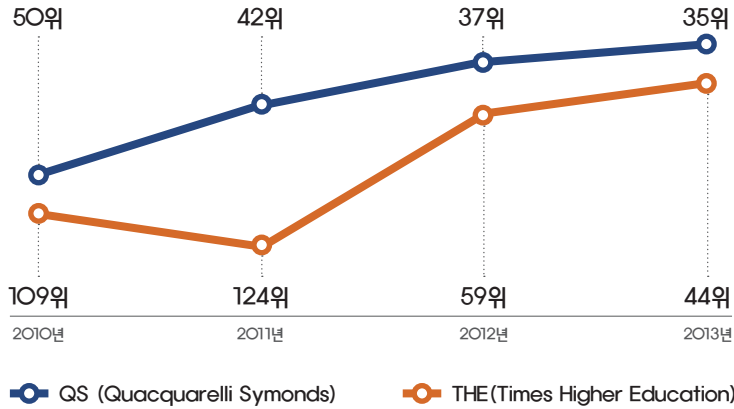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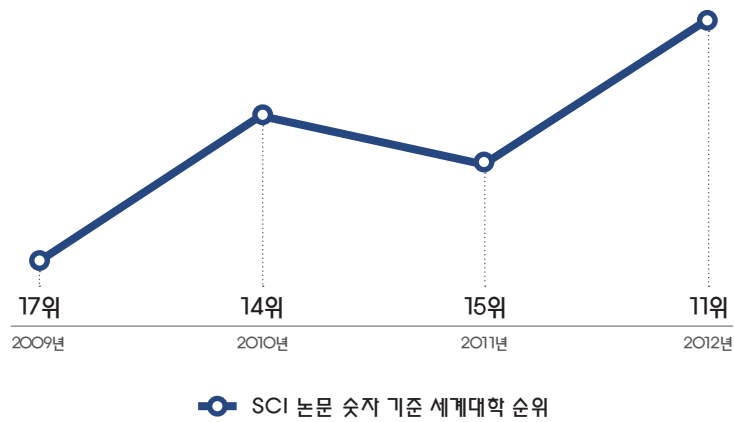
대학발전 주요지표



1. 세계대학평가 순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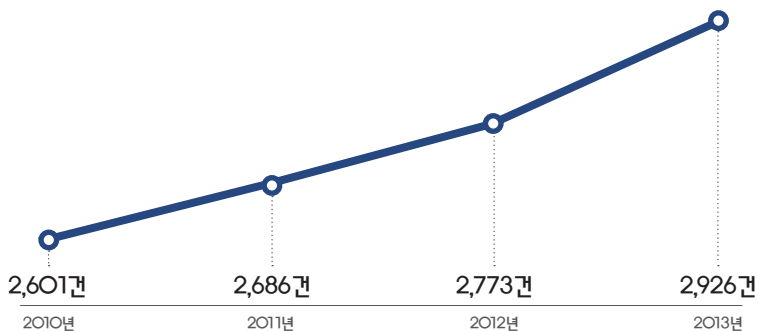
2. 연구력 향상: 국제학술지(Science Citation Index 등재학술지) 발표 논문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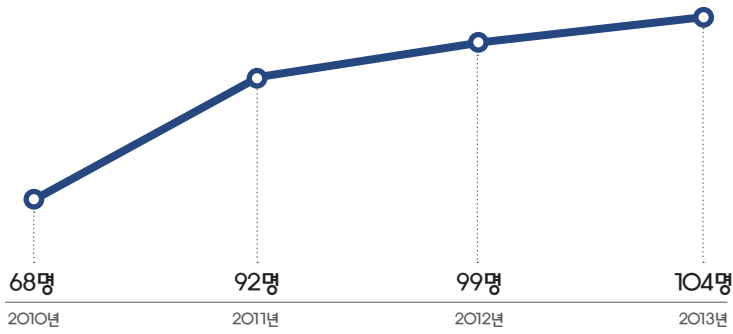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립대학 NTU Ranking, 'Performance Ranking of Scientific Papers for World Universities'

3. 국제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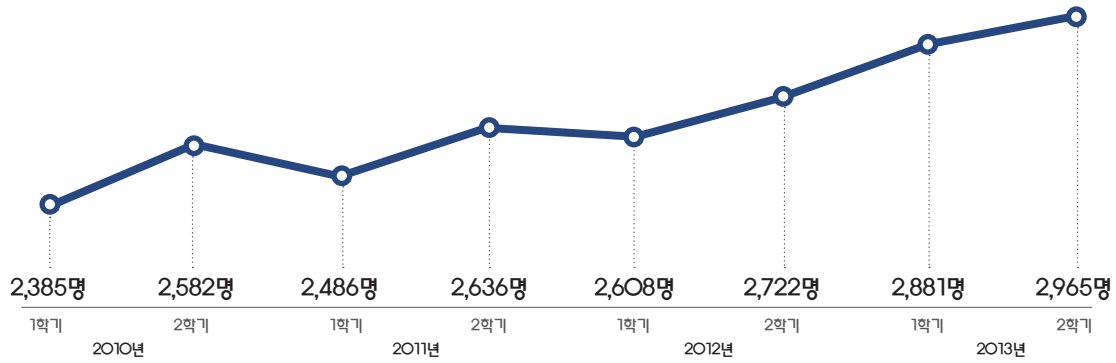
(1) 학술교류협정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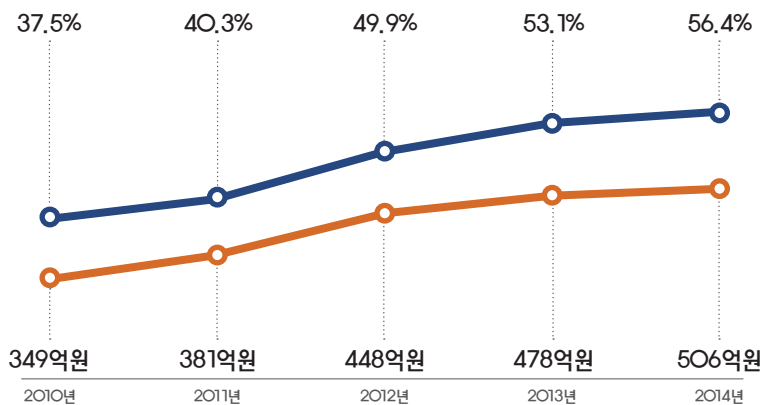
(2) 외국인 교수의 점진적 증가



(3) 외국인 학생의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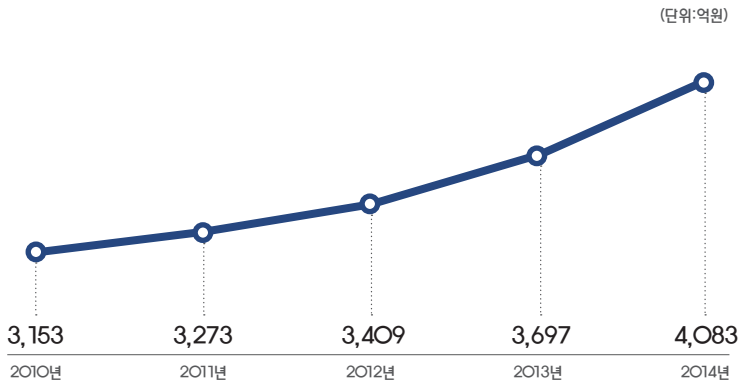
4. 학부생 장학금 및 수혜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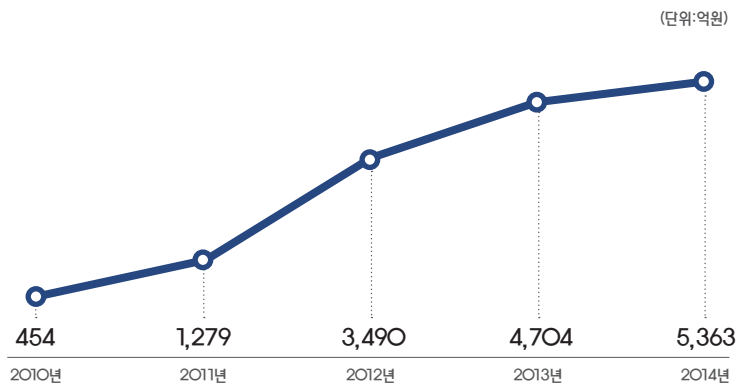
* 수혜율은 등록금 대비

5. 재정 확대

(1) 국고출연금의 증가



(2) 발전기금의 증대(2010년~2014년 누적)



* 2010년: 2010년 7~12월

2014년: 2014년 1~7월

1.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미래교육 비전 제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미래의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육부문의 미션으로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세계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반학문 교육 진흥', '수요기반 학생 지원 체제 구축'을 선정하였다. 핵심과제별로는 아래와 같이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법인 전환 후 미래교육의 큰 틀을 설정하고 교육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핵심과제의 개발을 위하여, 2012년 10월 ~ 2013년 3월 미래교육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였다. 5개 분과(학부, 대학원, 학생선발, 교수제도, 교육정보화)별로 6~10개의 과제를 집중 연구하여 과제별 실행목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미래교육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법인화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 9월 교무처 내에 미래교육팀을 신설하여 대학 교육 개선, 교육과정의 개발,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 학문후속세대 육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문 과제별 성과

핵심과제	세부과제	성과
세계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육성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우수 인재 해외 교육·연구기회 제공
	우수인재 조기 육성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석사연계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등 설치 및 운영
	차세대 학문선도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및 지원 ▪ 대학원생 강의·연구 지원 장학금 지원
기반학문 교육 진흥	리더로서의 자질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양 교육과정 개편 ▪ 인성·리더십·글쓰기교육을 통한 소통역량 강화
	기초학문 교육연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및 미래 인문학 교육·연구기반 조성
	창의융합형 실험·실습 교육 기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핵심시설 구축 ▪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학과(부)별 전공교육의 다양화 추구
수요기반 학생 지원 체제 구축	구성원의 글로벌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 ▪ 우수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및 본교 학생의 해외대학 파견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학생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반(needs-based) 장학제도 강화 ▪ 학업 준비도 향상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 e-Learning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방법 도입
	경로추적형 학생 지원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에 대한 전주기적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검토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운영

- 미래교육의 중장기 핵심과제 개발 위해 2012년 10월~2013년 3월 운영
- 5개 분과(학부, 대학원, 학생선발, 교수제도, 교육정보화)별로 각 6~10개 핵심과제 발굴

학사제도 개선

교육역량 제고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학과(부) 및 연합전공·협동과정 신설 등의 학사과정을 신설하였고, 고급연구인력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2013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 강좌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업선택권을 제고하였다. 2010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예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주요내용

- 학과(부)전공 신설
 -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치의과학과 분리 및 의생명과학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학 전공 신설,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설립(2014년 9월 예정)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개 학과를 융합과학부로 통합
- 학부 분리: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분리, 산업공학과와 조선해양공학과 분리
- 대학원 협동과정 신설 및 폐지·신설
 - 신설: 농림기상학,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전공, 농생명유전체학전공, 줄기세포 생물학전공
 - 폐지: 음악학 전공, 농업생물공학 전공
- 연합전공 벤처경영학 설치
- 강의평가 결과 공개(학사과정)
- 예비수강신청제도 도입

교수임용제도 개선

석학에 대해 정년과 관계없이 신규임용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교수임용제도의 유연성을 증대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에 따라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전환(의대 103명, 경영대 8명, 생활대 1명)하여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산학협력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신설하였다.

우수한 강의교수 확보를 위해 직급 부여 등을 내용으로 강의교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의 교수의 신분 안정화 및 처우를 개선하였다.

교육기반의 개선

우리 대학은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편된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과대학별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수규정을 개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의의 창의성 제고와 스마트 환경에서의 교수법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수법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의 실체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강의촬영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확충하고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여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였으며, 물리·과학·생물 등 기초과학교육실험·실습실 환경을 개선하여 핵심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학업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 함양, 소통능력 향상, 사회진출 지원 등 창의적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교양과정 개편

-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의 교육기회 및 강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초교양과정 개편

학문의 기초 (155)	학문의 세계 (282)	선택교양 (113)
사고와 표현 (7)	언어와 문학 (46)	체육 (33)
외국어 (80)	문화와 예술 (45)	예술 실기 (11)
수량적 분석과 추론 (21)	역사와 철학 (85)	대학과 리더십 (14)
과학적 사고와 실험 (45)	정치와 경제 (30)	창의와 융합 (34)
컴퓨터와 정보 활용 (2)	자연과 기술 (18)	한국의 이해 (21)
	생명과학 (29)	

* () 안의 숫자는 해당 영역별 교과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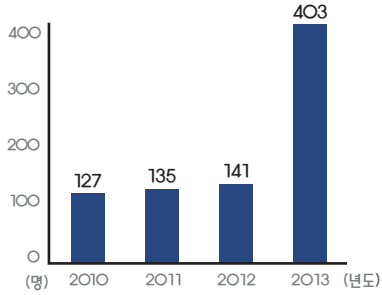
스마트 강의실 및 기초과학교육 실험·실습실 구축현황

구분	스마트 강의실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생물 실험실
위치	61동 121호	19동 1층(7실)	502동 1층(6실)	504동(5실)
운영주체	교수학습개발센터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교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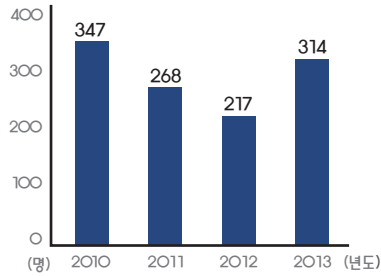
교수법 워크숍

교육자 수상자의 강의 노하우 / 창의적 교수법
ipad 활용법 / 학생 지도 및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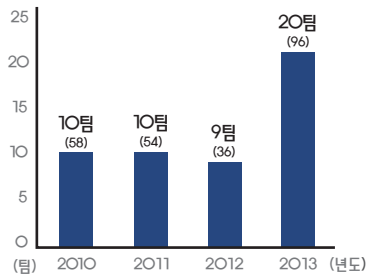
예비교수자 양성과정

교육자로서의 자기성찰 / 효과적인 강의전략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 학습의 이해 등



강의개선을 위한 교수 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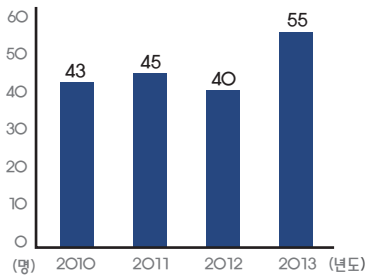
공학수학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 집담회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학제간 집담회 등



■ 중 참여팀(중 참여인원)

강의촬영 및 분석

강의 촬영 및 분석
마이크로티칭 워크숍



| 교육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별 특징 |

기회균등	경제 사정 등으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기초학문능력향상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함
소통능력향상	한국어 글쓰기 능력의 평가 및 교육을 통하여 소통능력을 발전시킴
SNU Frontier+ 사회진출준비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갖추어 국내외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도록 도움

2. 입학전형의 개선

공교육 정상화 기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소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학내·외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5학년도를 기점으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시부담을 경감하였다.

주요내용

- 학생의 소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의 체계적 확대
 - ※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인원 추이 : 2010학년도 2,061명 → 2014학년도 2,789명
- 입학정원의 1/3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2013학년도에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사교육 유발 요소 완화
-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 2012학년도 710명 → 2014학년도 779명(치의학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15명 포함)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시 부담 경감

열린 입학전형

26명의 입학사정관이 17개 시·도 교육청별 권역을 담당하는 지역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연간 100회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웹진 아로리를 발간하여 고교-대학 간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입학사정관 지역담당관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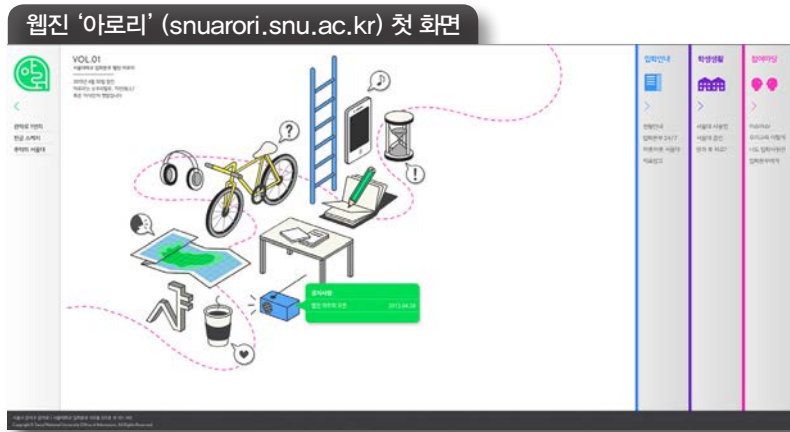
- 26명의 입학사정관이 17개 시·도 단위로 배정되어 해당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와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입학설명회 실시

- 교육청 단위 교사 직무연수, 대입전형 관련 강연, 고교 방문 간담회 등에서 입학설명회를 연간 100회 이상 실시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인식 격차 해소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지인·친구를 뜻하는 옛 우리말) 구축|

- 동영상, 인터뷰 등을 활용한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입시 관련 오해와 편견 해소
- 상호 이해 및 신뢰 제고를 통해 고교-대학 간의 동반자적 관계 증진



|입학전형의 간소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

대입전형은 사교육 과잉 문제 및 교육기회 형평성 등과 연관이 있기에, 서울대는 사회적 책무성을 통감하여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입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입학전형 간소화에 따른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평가시스템 개선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통해 극복하였다.

|입학전형의 간소화|

- 입학전형의 수를 2010학년도 6개에서 2015학년도 5개로 축소
- 입학전형 요소: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간소화
- 입학전형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경감 및 일선 고등학교 교사의 진학지도 고충 완화

|평가시스템 개선|

- 전산 인프라 준비를 통해 입학전형 업무의 운영 및 보안상의 안정성 개선
- 다년간 축적한 고등학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학생선발 시 참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 다수·다단계, 블라인드(Blind) 서류평가 체계 정립 및 학생선발 평가매뉴얼 제정을 통해 입학사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전공안내 및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전공안내 및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과 예비신입생의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계발을 지원하였다. 고등학생에게 단과대학별 전공 소개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과 글로벌인재특별전형(구 외국인특별전형)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공안내 프로그램|

- 고등학생 또는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 전공 소개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전국 단위로 고등학생을 초청하여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단과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 마련
 -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전공학업 계획 및 목표 수립을 독려하여 자기계발 동기 부여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과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예비신입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여 잠재력 발현 도모
 -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외에 2013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비대학'을 별도 운영
 - 전·후기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예비신입생의 입학 전 교육을 2010년 8월부터 매년 2회 실시

3. 교육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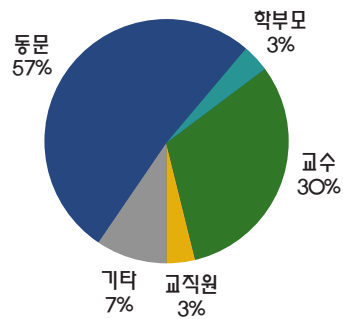
SNU 희망장학금 조성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유예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SNU 희망장학금'을 2010년 신설하여 수요기반(need-based)장학제도에 의한 맞춤형 학생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SNU 희망장학금은 교수, 동문, 학부모 등 서울대 가족들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동참한 모금으로, 4년 동안(2010년 7월~2014년 6월) 162억원 약정되었고 그 중 148억원이 출연되었다.

SNU 희망장학금 현황

참여건수	1,505건
약정액	162억원
납입액	148억원

〈참여자의 구성〉



SNU 희망장학금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내역
등록금 지원	가계소득 5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300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해외수학경비 지원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학생에게 최대 연 1,050만원 해외수학 경비 지원

※ 기간: 2010년 7월 ~ 2014년 6월

새내기대학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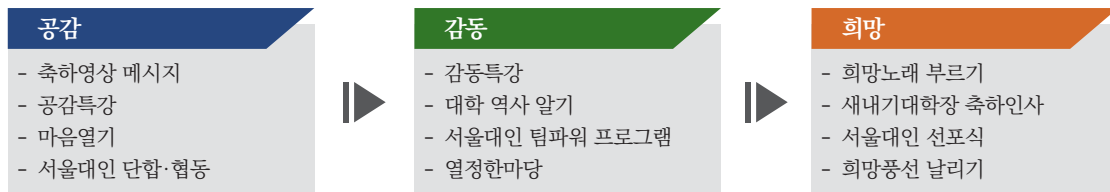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2학년 시작된 『새내기대학』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대학본부가 직접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다. 새내기대학은 다양한 입시전형에서 선발된 신입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친교를 맺도록 기획되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학생 멘토단에 의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새내기대학은 신입생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주요내용

• 2012~2014 참가 현황

연도	전체 신입생	참가인원
2012년	3,278명	1,969명 (60.06%)
2013년	3,410명	2,530명 (74.19%)
2014년	3,350명	2,591명 (77.34%)

• 주요 프로그램 및 메시지



2014년 서울대학교 새내기 대학



졸업후 진로모색 프로그램 다양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업들과 최적의 직장을 찾는 학생들에게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더불어 해외 인턴십 및 GTP(Global Talent Program)를 운영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를 통해 취업통계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진로상담은 2011년 1,860여회, 2012년 1,310여회 실시하는 등 이전(2010년 600여회)에 비해 학생 참여율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취업컨설팅 또한 매년 1,000회 이상 실시하였다. 글로벌 기업에서의 해외인턴십 기회를 확보하여 매년 20명 이상 파견하였다.

| 기업연계 프로그램 추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용박람회	104개 기업	152개 기업	186개 기업	177개 기업
채용설명회	118회	128회	114회	118회
채용상담	295회	362회	291회	235회
기업간담회	-	27개 기업	59개 기업	68개 기업

4.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인재 유치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할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초우수 인재육성 사업|

-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주요 거점대학 지정을 통한 한국학 진흥, 기초학문분야 육성 지원, 자원 개발국가 및 최빈국가 교육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대학원생 유치 홍보, 장학금 (학부) 지원, 초우수 외국인 학문후속 세대 장학금(대학원), 초우수 핵심인재 장학금(대학원)
- 교육지원 :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수업, 멘토링 사업

|SNU President Fellowship|

-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 대학 고등교육인력 양성과 대학간 교류를 위해 추진. 아시아 주요 대학 유수의 대학 우수교수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수학 지원(3년)
- 지원분야 : 공학, 의학, 보건학, 농학, 한국학 전공자 우선 선발
- 2014년 1학기 3개국 5명 선발

2014년 외국인학생 오리엔테이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 학위 및 복수학위 교류 협정 체결을 활성화하였다.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 SNU in Beijing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다양한 학문적·문화적·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 SNU in Tokyo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일본에 대한 현실감 있는 이해와 일본 현지 석학들의 강의, 현장 체험을 통한 복합적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 SNU in Washington

세계 국제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정부기관, 국제기구, 싱크탱크 등을 방문 진행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 SNU in Moscow

한국 대외정책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러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SNU in Global Research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원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 하는 프로그램

- 국제하계강좌(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2007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매년 하계방학에 서울대에서 본교 및 해외대학의 교수·학생을 초빙하여 영어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체결 현황(2014년 7월 기준)

과 정	학위운영 형태		계
	복수학위	공동학위	
학 사	1	-	1
석 사	25	-	25
박 사	10	2	12
소 계	36	2	38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교육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였다. 북경대와는 2012년 5월 서울대-북경대 최초로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3년 6월에는 '새로운 한·중관계 미래를 위한 지식인 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북경대 한·중 미래 포럼을 가졌다.

동경대와는 2013년 1월 '글로벌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동경대 최초로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제2회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를 열고 양교의 연구·교육 분야 협력 및 국제화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양교간 사무실 상호교환에 합의하여 동경대내 서울대 사무소를 개소하고 한·일 교육문화 교류 강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편 2013년 12월에는 북경대, 동경대, 베트남국립대(하노이)와 BESETOHA 총장포럼을 개최하고 학술적·교육적·미래지향적 이해 추구하고 교육 협력을 추진하자는 공동의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협력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국제적 저명인사들의 서울대 방문이 크게 늘어나 한층 높아진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을 반증했다. 2012년 10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강연회를 개최했고, 2013년 2월 미얀마 정치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가진데 이어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2014년 7월에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강연회 등이 열렸다.

|주요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제16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연례회의(칭화대, 2010년 10월)
- 제1회 아시아대학포럼(Asian Universities Forum, 서울대, 2011년 12월)
- 서울대-북경대 연석회의(북경대, 2012년 5월)
- 제18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연례회의(서울대, 2012년 11월)
- 제15회 서울대-훗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 훗카이도대, 2012년 12월)
- 제2회 아시아대학포럼(AUF) (서울대-태국 쫄라롱꼰대 공동주최, 2013년 1월)
-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서울대, 2013년 1월)
- 제4회 고등교육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리야드, 2013년 4월)
- 세계은행과 양해각서 체결(2013년 4월)
- 서울대-북경대 한중미래포럼(Academic Dialogue, 북경대, 2013년 6월)
- 제17회 환태평양 대학연합(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총장포럼(블라디보스톡, 2013년 6월)
- 아시아개발은행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2013년 7월)
- The World Academic Summit(싱가포르, 2013년 10월)
-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동경대, 2013년 10월)
- 제13회 BESETOHA 총장포럼(서울대, 2013년 12월)
- 제16회 서울대-훗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 (서울대, 2013년 12월)
- 동경대에 서울대학교 사무소 개소(동경대, 2014년 4월)
- 서울대에 동경대학교 사무소 개소(서울대, 2014년 6월)

제 13회 베세토하 총장포럼(2013년 12월)



|글로벌 저명인사 초청 주요행사|

연도	행사명
2010	인디애나대 엘리노어 오스트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강연(8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 해리엇 발베리-헨릭슨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2월)
2012	예일대 조너선 스펜스 교수 강연(4월)
	Max-Planck 연구소 클라우스 폰 클리칭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강연(7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 강연(10월)
2013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2월)
	MS 창업자 빌게이츠 강연회(4월)
	스웨덴 보건사회부 올프 크리스테르손 장관 강연(9월)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강연(10월)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강연(12월)
2014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강연(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 강연(2월)
	영국왕립학회 회장 폴 넬스 노벨의학상 수상자 강연(3월)
	주한중국대사관 추귀홍 대사 강연(4월)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강연(5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강연(7월)

미얀마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 학위 수여(2013년 2월)



1. 기초학문 진흥

기초학문분야 지원·육성

대학 본연의 임무이자 사회적 책무인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문기획평가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학문분야의 교육·연구·인프라 구축·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기초학문 육성·지원

-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초학문후속세대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인프라 구축
- 기초학문 연구 지원: 미래 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 창의·융합형 실험실습 기반 확립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201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박사과정 학생과 수료생이 학문연구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각각 96명, 36명을 2014학년도에는 58명을 신규선발하였다. 학문후속세대로 선발된 박사과정 재학생에게는 2년간 연간 2,000만원, 수료생에게는 3년간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신규선발인원

- 2012년: 박사과정 재학생 49명, 수료생 47명
- 2013년: 박사과정 재학생 16명, 수료생 20명
- 2014년: 박사과정 재학생 26명, 수료생 32명



2. 연구역량 강화

미래연구 지원 강화

2012년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선도하고자, 서울대학교 학칙(제44조)에 미래연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추진 아젠다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미래연구위원회에서는 국가 R&D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본교의 핵심적인 미래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조사, 연구과제 발굴,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장기적·지속적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전략 등 7개 아젠다를 도출하였고, 이 중 시급한 식량위기극복포럼 등 3개 과제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 핵심 연구분야인 빅데이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등 본부 직속 빅데이터연구원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학제적 개방형 연구토대 구축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적 합리성 및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개방형 공동연구의 토대를 구축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SNU Brain Fusion Program』을 지속추진하였으며, 2010~2013년 61과제, 4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하였다.

| SNU Brain Fusion Program |

(단위 : 백만원)

구성유형	2010년		2012년		2013년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유형 I (인문사회·예체능계열)	3	140	1	50	1	30
유형 II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13	885	6	555	4	295
유형 III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16	975	8	895	9	675
계	32	2,000	15	1,500	14	1,000

BK21플러스 사업 유치

2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어진 2013년 BK21플러스 사업 유치에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7년간 총 38개 과제, 약 3,052억원(전국단위 지원액: 1조 1,2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창의적 연구를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BK21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K21플러스 사업 유치

구분	전국단위 선정 수	서울대학교 선정 수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265	35
글로벌인재양성	14	3

※ 산출근거

- 전국단위 지원액(7년): 1년 예산 글로벌인재양성(112억)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1,489억) × 7년
- 서울대학교 지원액(7년): 6개월 협약액 218억 × 2 × 7년(BK21플러스 사업 신청 주요사항 안내에 “1~7차년도 사업비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

기초과학연구원(IBS) 외부연구단 사업 유치

2012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본원연구단, 캠퍼스연구단, 외부연구단으로 분류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서울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2년 선정된 10개 외부연구단 중 서울대가 가장 많은 3개 외부 연구단을 유치하여 총 1,335억원 (4년 5개월)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가 유치한 IBS 외부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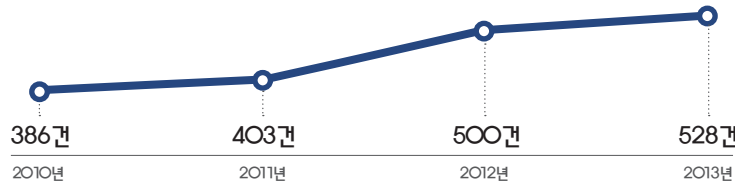
연구단	단장(소속 학부)
강상관계물질연구단	노태원 교수(물리천문학부)
RNA연구단	김빛내리 교수(생명과학부)
나노입자연구단	현택환 교수(화학생물공학부)

첨단연구기반 확충

교수들의 학술활동 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성과급의 지급 확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상 수여 등 연구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논문(피인용 상위 1% 논문)의 꾸준한 상승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초학문후속세대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인프라 구축
- 기초학문 연구 지원: 미래 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 창의·융합형 실험실습 기반 확립



*출처: 한국연구재단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첨단연구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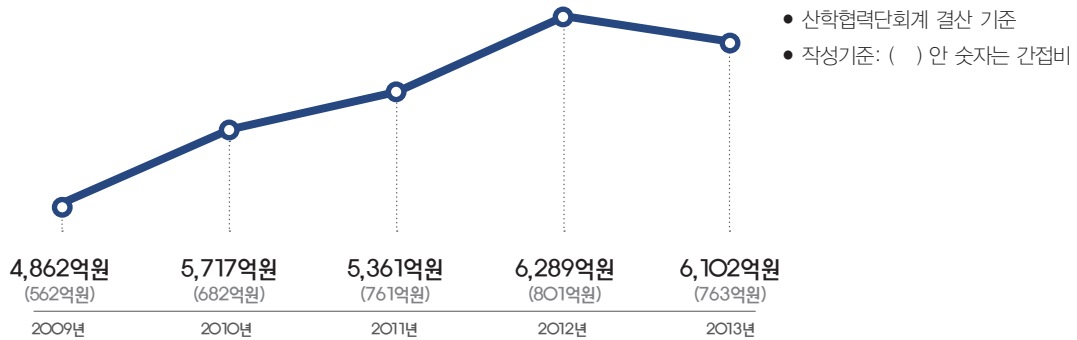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대학은 예산의 제약 등으로 연구기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법인화를 계기로 첨단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등 5개 기관에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14년도에는 1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나노미터 이하 단원자 단위의 구조 판별 및 화학결합 상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구면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Cs-corrected TEM)」을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도에는 학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연구장비 수요를 조사하여 장비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장비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첨단화된 연구장비 확충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를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유치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비 수주 증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과제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연구비 지원 확대에 인하여 매년 5~10%의 연구비 증가율을 보이며 연구비 규모는 성장해 왔으나, 2013년 대형사업의 종료(WCU, BK21)로 인하여 연구비는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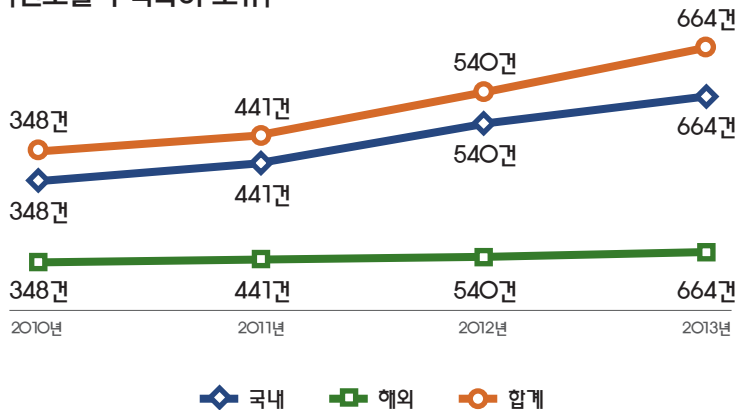
|연도별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액(간접비 포함) 현황



특허 보유 증가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교내 연구자의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하여 2010년 이후 간접비 중 일부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별도 편성하고 출원 여부 심의 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에 따라 누적 특허 보유현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누적특허 보유|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 지원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액(백만원)	1,784	2,213	3,084	3,600

4. 연구윤리 강화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 강화

연구경쟁이 치열해지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학내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팀을 행정조직으로 신설하였다. 연구윤리팀은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해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Turnitin'을 도입하였다.

|연구윤리팀 신설|

- 연구윤리 전담 행정 조직으로 연구윤리팀 신설(2012년 9월)
-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 지원
- 학내 구성원에게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제공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도입|

-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 도입(2014년 1월)

연구윤리 교육 강화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국내 최초의 연구윤리 교과서 발간을 지원하였고 홍보 팜플렛 등 기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제공|

- 연구윤리 대학원생 정규 교과목 개설
- 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강의 제공

|연구윤리 관련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심의 절차 안내 등 홍보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국내 최초의 연구윤리 교과서 발간 지원

5.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가 연구역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의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현장 밀착형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그린바이오 통합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농업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화로운 산학협력이 구현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체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경과

- 2004년: 서울대학교-강원도-평창군 양해각서 체결(12월)
- 2006년: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
- 2008년: 산학협력계약 체결(7월)
- 2009년: 기공식(7월)
- 2011년: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설립(4월)
- 2013년: 준공(6월), 대학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로 고시(12월)
- 2014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준공식(6월)
- 2014년: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개교 예정(9월)

|개요

-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 부지면적: 2,780,539m²(건물 88,549.62m²)
- 총사업비: 3,118억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빅데이터연구원

학내 연구진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제반기술을 접목하여 공학은 물론 인문, 사회, 행정, 의료, 경영,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간 벽을 넘는 초학제적 연구 및 인재양성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이 2014년 4월 설립되었다. 연구원에는 13개 단과대학 및 5개 전문대학원 등에서 약 17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기술로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기에 너무나 빠르고 대량으로 생성 및 축적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흐름이나 상관성을 찾아내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컨설팅 업체인 IDC는 빅데이터의 시장규모가 2012년 50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500억달러로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맥킨지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혁신효과가 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연구원의 개원으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요|

- 빅데이터연구원 개원(2014년 4월)
- 참여연구진: 170여명(13개 단과대학 및 5개 전문대학원)

|주요활동|

- 학제적 연구 및 실용화 연구
- 산학연 공동연구
-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 빅데이터 연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총괄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감염성질환, 암, 순환기 질환, 이식, 알러지 및 성인병 등 면역학적 측면에서의 기초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및 학제간 협동연구와 대학 연구소, 병원 및 산업체간 통합연구 기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면역의학 분야 산업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연구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에 대한 이론과 연구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2012년 7월 아시아태평양 법연구소가 출범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산하에 동북아시아법연구실, 동남아시아법연구실, 중앙아시아법연구실, 러시아법연구실, 이슬람법연구실 및 중남미법연구실을 두어 전문 주제연구에 맞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 및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응용물리연구소

소재·소자 물리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2013년 6월 응용물리 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분리·설립되었다. 연구소 산하에 그래핀·나노소재연구단, 차세대양자 소자연구단, 광·디스플레이연구단 및 공동기기센터 등을 두고 응용물리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연구·응용 연구 및 산·학·연 다학제간 공동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과의 접점으로서 미래 핵심 산업시스템 분야의 선형기술에 대한 연구와 요소기술들이 조합되어 구성되는 산업시스템(제조시스템, 금융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연구소 산하에 인력양성부,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기획행정실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

삼성전자와 다양한 산학 협력 및 창의적인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하여 '삼성전자 서울대연구소'를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연구소 건립 및 발전기금(산학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4년 하반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신축 건물은 연구공원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SK연구소, LG연구소, 코웨이연구센터, 백신연구소)과 더불어 융합학문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건물 규모는 연면적 46,200㎡로 단일 연구소로는 우리 대학 최대 규모이며, 동 연구소가 건립되면 국내 최고의 산학협력 연구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6.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창의선도연구자 선정 및 유망 신진학자 지원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다양한 연구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2년 노벨상 수준의 국제학술상 수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창의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초과학 및 의·약학, 융합과학 등 분야에서 8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2013년 창의선도연구자 수준의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신진교수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명에게 12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우수연구자 지원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연구자	중견연구자	연구자	중견연구자
인원(명)	3	5	3	5
1인당 지원금액	400	260	400	260
총 지원금액	1,200	1,300	1,200	1,300
	2,500		2,500	

유망신진연구자 지원

(단위:백만원)

연도	인원(명)	1인당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2013	10	125	1.250



1.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글로벌 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화

국내 사회공헌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봉사단』을 2010년 창단하여 학내 여러단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설립하여 연계형 글로벌 사회봉사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봉사활동

- 스누봉사단 창단(2010년 10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활동, 노력활동, 문화교류 활동 전개
-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연 1회)
- ‘글로벌 봉사단’ 창단(2011년 1월)
- ‘글로벌사회공헌단’ 설립(2013년 2월)
 - 학내외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 사회공헌리더십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국내외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 및 정책자문
 - 대학의 선도적 사회공헌활동모델 제시
 -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참여 활성화
- 봉사활동 참여인원 현황
 - 국내 654명, 해외 9,365명

2013년 글로벌봉사단 발대식 (2013년 7월)



국내 공헌활동 실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에 부응하고자 교육소외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식나눔 실천을 확대하고, 캠퍼스 주변 지역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중·고교생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서울시와 MOU 체결), 법무부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법무부와 MOU체결) 등 새로운 개념의 교육기부 사업을 전개하였다.

|주요 공헌활동|

- 나눔교실: 전국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교육소외지역에 소재한 학교 현장에 찾아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악구, 종로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대한 학생 동아리 및 단체의 교육·노력·의료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교과목(사회봉사1·2)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 학내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재능·지식 나눔, 노력 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
- SNU 멘토링: 서울대 재학생 멘토와 전국 저소득층 청소년 멘티간 온·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교육기부 활동|

- 서울시 중·고교생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체험의 날, 서울대생과 함께 즐기는 토요일프로그램,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행복공감멘토링 등
- 법무부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2013년)
- 나눔실천단 활동 확대
 - 2006년 나눔실천단 창설 이후 총 51개 시군에서 73개팀. 1,220여명의 재학생과 4,770여명의 중고생이 참여

2. 지식 나눔

온라인 강의 개방

서울대학교의 우수강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의 학술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온라인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대학의 사회적 공헌과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세계 우수 대학 연합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 제공기관인 edX 내에 SNUx 강좌를 운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다.

공개 온라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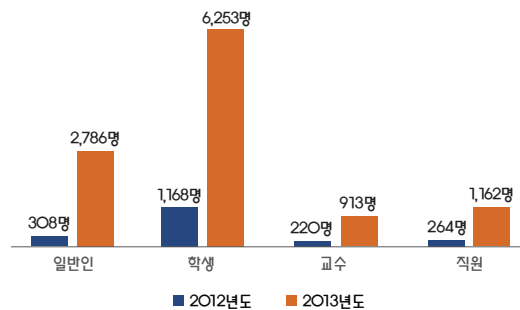
- 서울대 열린강좌 시리즈(2013): 22강좌 총 483개
- 서울대 명품강좌 시리즈(2011~2012): 7강좌 총 33개
- 서울대 교양특강Ⅲ 시리즈(2010): 15개

공개서비스 운영

- 기존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를 2013년 리뉴얼하여 SNUON 웹 사이트 개설, 운영
- 2012년 6월부터 학내 구성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SNUON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세계 우수 대학 연합의 온라인 교육 기관인 edX와의 협약을 통하여 SNUx 글로벌 강좌 운영 (2014학년도 1학기 4강좌)
- SNUON 웹 수강신청 현황(<http://snuon.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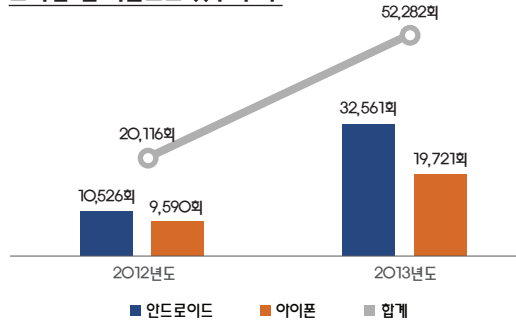
웹 수강신청 현황



- SNUON 모바일 서비스 이용현황(앱스토어/구글 마켓 'SNUON', '스누온' 검색)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누적)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수준에 걸 맞는 공익적 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평생교육 전담 기구로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일반인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수준 높은 교양교육과 전문기술 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지성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통한 노블리주 오블리제 실천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

- 서울대학교의 평생교육전담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설립(2010년 5월)
 - 시민교양교육 및 전문자격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진행
 - 온라인 평생교육 포털인 SNUi 서비스 개시(2010년 9월)
- 온라인 전문 자격 프로그램의 운영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대학교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한국어교원 3급 최다 양성기관으로 선정(국립국어원)
 - 전 세계 40여개국 100여개 지역의 한국어교원 4,000여명에게 온라인 교육 실시
 -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서울대학교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
- 교내외 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협약 과정 운영
 - 구로구청, 관악구청과 협업하여 「평생교육 강사양성과정」
 - 「제3기 인생 온라인대학」 기업교육프로그램(PCA 생명)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회공헌사업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지식나눔 캠프
 - KRX 국민행복재단과 함께 KRX-SNU 차세대 경제·금융리더스 포럼
- 교육부 인증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으로 등록(2014년 2월)

교육소외지역 미래인재학교 운영

입학본부는 2010년부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미래인재학교」를 운영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고 서울대와 지자체,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학습 모델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미래인재학교 운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서울대, 지자체,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학습모델 조성

연도	지역	구분	대상(인원)
2010	전남 목포, 신안, 무안, 완도, 함평, 영암(8월)	여름학교	고1~2(158)
	전북 부안, 정읍(8월)	여름학교	고1~3(100)
2011	강원 철원(2월)	겨울학교	고2(100)
	경북 영주, 봉화(3~7월)	토요학교	고1(80)
	경남 통영, 고성(8월)	여름학교	고1~2(100)
2012	전남 여수(2월)	겨울학교	고1~2(160)
	경북 영주(9월)	토요학교	고1(75)
2013	제주 서귀포(2월)	겨울학교	고1~2(100)
	전남 여수(7~8월)	여름학교	고1(100)
	경북 영주(8~9월)	토요학교	고1(80)
2014	전남 고흥(7월)	여름학교	고1~2(100)
	전남 여수(7~8월)	여름학교	고1(100)

3.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및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실시

입학전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전체 입학생의 1/4 이상을 사회적 배려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통해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소외계층의 진학기회를 제고하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

- 신입생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모집
- 학생의 환경적 측면이나 학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장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 저소득 가구 및 농어촌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진학기회 제고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 2010학년도: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201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학내 인권 증진

인권 증진 체제 구축

2012년 7월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학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조사, 인권연구, 인권교육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종합적인 대학인권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발생한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구비하였으며, 인권침해 또는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인권연구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권증진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

-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는 인권침해 및 고충 민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
- 연 100건 이상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연 1,500회 이상의 관련 상담을 진행
- 신고 접수된 사건은 통상 2개월 내에 처리 완료

제도 개선

- 유사사례 발생방지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 추진
- 학위수여규정 개선, 논문지도교수변경 표준양식 제정, 모유수유실 환경개선, 휴학제도 개선, 용역 근로자 근로지침이행확약서 제출 시행 등 제도개선 실시

인권증진 활동

- 대학(원)생 인권연구프로젝트(매년 10여 팀 이상 연구비 지원), 대학(원)생 모의 UN인권이사회UPR 대회(매년 40명 이상 참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훈련, 인권 UCC 제작 콘테스트, 인권주간 행사, 여성과 인권정책 포럼, 외국인 학생 인권 포럼 등 학내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
- 인권가이드라인 및 MT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인권연구

- 매년 인권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사업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인권연구를 수행

인권 교육 강화

인권침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권센터는 제도 개선 활동과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인권교육은 구성원들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는 법령상 의무 사항인 성평등 교육(성희롱·성매매·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강의가 어려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학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성평등교육을 자체 개발·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온라인 예방교육 콘텐츠와 교육시스템을 공익적 차원에서 타 대학과도 공유하고자 여러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의 실시

- 매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음(현재 제11차 교육 자료 제작 중)
- 서울대학교는 대학에 특화된 내용의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콘텐츠와 교육시스템을 본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현재 5개 대학)에도 제공하고 있음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실시

- 각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에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인권 강좌 프로그램의 운영

- 매년 '국제 개발과 인권' 강좌 개설(2013년의 경우 100여명 참가)
- 매년 '인권과 아시아' 강좌 개설(2014년의 경우 20개국 39명의 학생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강좌 진행)



1.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법인체제 전환 및 시스템 개선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체제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새로운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포함한 행·재정, 인사·조직·보수 등을 결정하여 법인체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2~2015년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였다. 대학운영성과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의 발돋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 육성', '선도적 학문가치 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기여'를 미션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직원의 신분·보수체계를 일원화하여 법인직원체제로 통합하였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전환 (2011년 12월 28일)
- 자율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 「이사회 운영규정」제정 (2012년 1월)
 - 「평의원회 규정」, 「학사위원회 규정」, 「재경위원회 규정」제정 (2012년 3월)
- 「서울대학교 학칙」전부 개정 및 조직 개편 (2012년 7월)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제정: 법인화 이후 총장선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속시설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및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2013년 11월)
- 사범대학 부설학교 법인 귀속 (2014년 1월)
- 직원인사제도 개편 및 신분체계 통합
- 서울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원 채용
 - 법인공채 1기(45명, 2013년 1월) 및 2기(78명, 2014년 5월) 채용
- 대학행정교육원 신설과 교육기회 확대
- 직원 장기근속자 직무연수제 도입
 -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30일

행정정보화를 통한 장기발전 역량 확보

법인화는 정보화 분야에서도 거대한 과제였다. 정부 행정시스템(d-Brain 등)의 사용 불가 및 급격한 제도 변화 수용 등의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수업무의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정보화를 통한 행정제도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두 단계(2011-2013)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내용

- 법인전환에 따른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 회계, 구매, 자산 서비스 구축을 통한 법인회계, 복식부기 등 핵심 제도변화 반영
 - 일반행정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조직운영 기반 마련
-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간시스템 연계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 등 내부시스템과 국세청, 금융기관, 연금공단 등 외부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추진
- 사용자 맞춤형 학사정보서비스 구축
 - 학적, 수업, 성적, 등록, 입시 등 전체 학사행정 프로세스 개선(총 112개) 및 전산화(온라인 처리율 : 57.3% → 90%)
 - 인터넷 제·증명 발급(총 26종), 등록금 실시간 수납, 졸업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등 학사 서비스 편의성 개선
 - 학사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학사정보 조회, 수업 및 학생관리 등 총 106종
-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종합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핵심 통계지표를 자동산출하여 분석적 의사결정 기반 제공
 - 부속기관 업무 정보화, 시설공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영역 확대
 - 법제처 법령관리시스템과 연동한 규정관리시스템 구축

소통 활성화

학생소통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보다 진정성 있고 활발한 소통노력을 기울였다. 보직자-학생대표 협의체,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원활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락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조와 학교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및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외에서는 관악구청과 2011년 1월 교육·복지·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발전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오고 있다.

|학생사회와의 소통|

- 학생들과의 소통 확대
 - 학생소통팀 설치(2012년 9월)
 - 총장·학생대표간 간담회를 통한 소통 활성화(2회)
 -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서한문 발송을 통한 소통 다양화(8회)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활성화: 17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학생의견 수렴
- 의사결정기구 학생대표 참여
 - 본부 보직자·학생대표 대화협의체 운영: 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학생의견 수렴
 - 각종 위원회(인권센터운영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평의원회 본회의 등)에 학생참여 유도
 - 시흥캠퍼스 관련 학생참여 대화협의회 및 기숙사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 도시락 소통간담회(2013년 2월~2013년 5월, 총 16회)
 - 의견도출: 정책제언 72건, 건의사항 284건
 - 도출된 의견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 소관부서에서 단기과제 중심으로 개선
- 학교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 노조와 본부 집행부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및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 지속가능한 재정기반구축

국고출연금의 확대

법인전환 후 『출연금 총액예산제』가 도입되어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출연금과 자체회계를 법인회계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법인체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캠퍼스(관악·연건·수원), 실험 및 실습장(수원농장·수원수목원·약초원), 연구소 및 연구단지 등 교육·연구용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았다.

|Finance 2010-2014|

- 국고출연금 예산 증가 및 자율성 확보
- 국고출연금 예산 큰 폭으로 증가
- 국고출연금 총액편성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확보

|연도별 서울대 재정 현황

(단위:억원)

연도	법인회계	산학협력단(연구비)	산학협력단(연구비)	계
2010	5,677	5,363	1,255	5,677
2011	5,968	5,924	1,201	5,968
2012	6,377	6,387	1,279	6,377
2013	6,888	5,359	1,470	6,888
2014	7,421	5,339	1,612	7,421


*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로 구분. 2012년부터 법인회계로 통합. 산학협력(연구비)에 간접비 포함

발전기금의 확충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는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Challenge for Tomorrow),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Challenge for Hope),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Challenge for Change)의 세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총 모금액 5,325억원을 달성하며 캠페인 모금 목표액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금 참여건수도 16,964건으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하며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SNU Challenge 모금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행은 발전기금을 통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의 체계와 기틀을 마련하였다.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

-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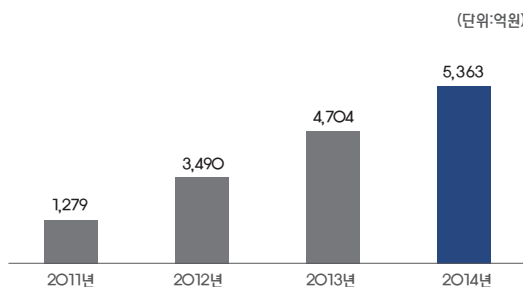
SNU challenge

- 캠페인 기간: 2010년 7월 ~ 2014년 7월
- 모금목표액: 5,000억원
- 총 약정액: 5,363억원(목표액 대비 107% 초과 달성, 2014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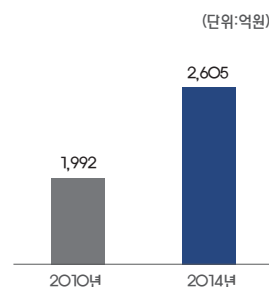
핵심모금사업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 Challenge for Tomorrow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 Challenge for Hope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 Challenge for Change
창의선도 과학자 집중 지원 세계 정상급 석학 초빙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 육성 국제화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SNU 희망장학금 대학 역량의 사회 환원 통일한국 비전 연구 수행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개발도상국 인재 지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법인화 전략 기금(자율과 책임 기금) 관악 캠퍼스 리모델링(SNU-Valley)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 서울대 역사관 건립	

|개요|

- 연도별 모금현황(누적)



- 기본재산 금액 비교



* 2014년: 2014년 1~7월

• 주요 목적사업 기부

기금명	약정액(억원)
서울대학교 관정 도서관 건립기금	600
(재)신앙문화재단 위임	200
우정원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기금	105
역사연구기록관 건립기금	1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금	76
농협은행 학생지원정책·학생복지증진사업 및 S-CARD 시스템 사업기금	75
서울대학교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	70
서울대학교-풍산 원형공연장 건립기금	52
PTC코리아 서울대학교 학술기금(이공계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51.3
조천식-윤창기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	50
두산 인문관 건립기금	50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기금	50
법대 첨단강의동 건립기금(우천법학관)	48.6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기금	38.1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공학연구소 학술기금	27
글로벌봉사프로그램 기금	22.9
김재익 장학기금	20
손장순 문학연구기금	20
정고장학기금	20
천재교육 장학기금	20

|비전별 주요 모금사업|

•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Challenge for Tomorrow)

1)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후원기금

- 기금 소개: 노벨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이 유력한 석학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기초 학문 분야후속세대를 이끌 선도적인 연구자를 후원하는 모금사업
- 총 약정액: 42억원

2) 석학교수 기금

- 기금 소개: 국내외 석학들을 본교 교수로 채용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석학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하여 연구환경 선진화를 지원하는 사업
- 총 약정액: 25억원

3) 국제화 인프라 구축 기금

- 기금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지원기금', '소천한국학센터 기금' 등 다양한 기관을 지원
- 총 약정액: 13억원

4)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 육성 기금

- 기금 소개: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기금
- 총 약정액: 32억원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Challenge for Hope)

1) SNU 희망장학금

- 기금 소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형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비, 해외수학 비용의 세 분야를 지원
- 총 약정액: 141억원

2)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 기금

- 기금 소개: 국내외 사회공헌리더십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와 정책자문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 기금
- 총 약정액: 105억원

3)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 기금

- 기금 소개: 다문화 가정 지원, 국내외 소외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
- 총 약정액: 52억원

4) 개발도상국 글로벌 교육협력 기금

- 기금 소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학생 혹은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금으로 'SNU President Fellowship', '김재익 장학 기금' 등 다양한 기금으로 구성
- 총 약정액: 41억원

•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Challenge for Change)



우천법학관

기부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부액 50억원
 용도 글로벌 법률가 양성
 위한 교육 공간
 준공 2013년 10월



두산인문관

기부자 두산그룹 박용현 회장
 기부액 50억원
 용도 강의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
 준공 2012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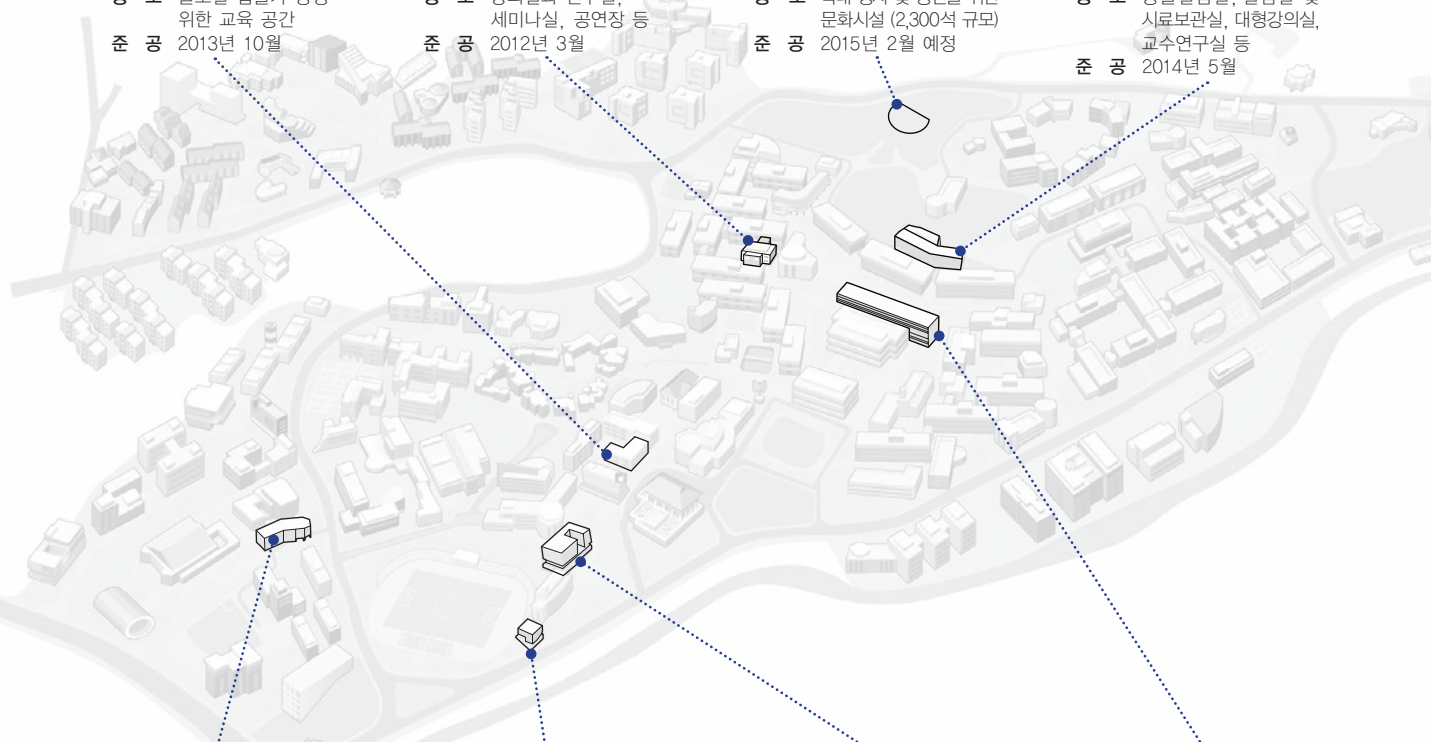
풍산 원형공연장

기부자 풍산그룹 류진 회장
 기부액 52억원
 용도 학내 행사 및 공연을 위한
 문화시설 (2,300석 규모)
 준공 2015년 2월 예정



약대 신약개발센터

기부자 동문, 교수, 법인 등
 기부액 총 171억원 중 47억원 지원
 용도 동물실험실, 실험실 및
 시료보관실, 대형강의실,
 교수연구실 등
 준공 2014년 5월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기부자 부영그룹 이부영 회장
 기부액 105억원
 용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준공 2013년 6월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기부자 IBK기업은행
 기부액 50억원
 용도 의사소통 역량 제고
 위한 교육 시설
 준공 2014년 4월



아시아연구소

기부자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기부액 총 208억원 중
 12억 8천만원 지원
 용도 세계적인 아시아 연구
 허브 구축
 준공 2013년 2월



관정도서관

기부자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이종환 명예이사장
 기부액 600억원
 용도 3,000석 규모의 열람실,
 공동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컨퍼런스룸 등
 준공 2014년 12월 예정

재정 시스템의 개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관련 법인의 재무정보 공유 및 재정의 통합적 조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내외 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재무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종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회계 및 예산제도를 개선하였고, 합리적인 예산배분체계를 마련하였다.

|종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013년 10월~ 2014년 6월)|

- 서울대 및 관련 법인의 종합재무제표와 종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인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 파악
- 통합적 재정정보 관리로 재무분석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요 의사 결정 지원을 강화

|회계 및 예산제도 정비 및 정착|

- 발생주의·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출연금과 자체회계를 통합하여 법인회계로 일원화

|합리적 예산배분체계 구축|

- 재정운영관련 워크숍 개최 및 회계별 주요사업 통합 심의·조정
- 서울대 비전 실현과 과제 추진목표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정착

3. 교육 및 연구시설 개선

관정도서관 신축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보 습득과 토론중심학습이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관정도서관 신축'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이었으며,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의 600억 원 기부로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캠페인을 통해 동문, 교직원, 학생, 일반 시민이 모아준 100여 억 원의 모금액으로 내부 가구와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정도서관은 공동학습이 가능한 그룹 스터디룸과 디지털기기 활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 등 첨단시설을 갖추게 된다.

관정도서관은 기존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울대학교의 지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건축개요|

- 연면적: 8층(지하 1층, 지상 7층)에 8,265평(기존 중앙도서관 9,200평)
- 주요시설: 열람석(3,000석), 그룹 스터디룸(43실), 개인캐럴(72실), 멀티미디어플라자 Faculty Lounge, 컨퍼런스룸(120석), 세미나실 등

관정도서관 조감도



교육·연구시설 신·증축 및 캠퍼스 환경개선

세계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연구중심대학 특성에 적합하도록 첨단연구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신축(재건축 포함) 19건, 리모델링 12건, 증축 2건 등을 추진하였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여 건강유해 요인은 최소화하고, 건강·안전 캠퍼스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육환경과 복지향상을 선도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캠퍼스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추진하였다.

신·증축 사업

(단위:m²)

준공 년도	사업명	규모 (㎡)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		
2010	신축(5)	신양학술학술정보관Ⅲ	2,506	3,116	발전기금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	
		건설환경종합연구동	1,654	3,336	발전기금(공대)	
		대림국제관	5,124	7,727	발전기금(대림산업)	
		어린이집	4,216	6,342	국고	
		해동학술문화관	2,401	3,500	발전기금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	
	리모델링(3)		인문관1(1동)	3,844	2,106	국고
			인문관2(2동)	3,844	1,725	국고
			치의학대학원 본관	12,093	4,000	국고
	재건축(1)	학생기숙사	67,254	85,475	민자사업(BTL)	
	2011	리모델링(5)	의대 교육관	4,995	3,926	국고
인문관4(5동)			5,181	3,777	국고	
자연과학관7(25동)			6,625	3,896	국고	
자연과학관9(27동)			6,359	4,998	국고	
		과학교육관(13동)	6,655	4,759	국고	
신축(1)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5,124	8,394	국고	
증축(1)	부설초 다목적실/ 부여중 급식실	2,367	3,646	국고		
2012	증축(3)	LG경영관	1,068	2,585	발전기금(LG)	
		국제대학원	1,447	1,916	국고	
		공학관4(33동)	4,076	2,173	발전기금(공대)	
	신축(2)	글로벌공학교육센터	17,249	25,299	국고	
		아시아연구소	11,997	20,785	국고	
	재건축(1)	두산인문관	3,621	6,300	발전기금(두산)	
리모델링(1)	공학관4(33동)	2,280	2,603	국고		

2013	신축(5)	우정원글로벌사회공헌센터	6,582	10,000	발전기금(부영건설)
		법대첨단강의동	6,207	11,642	발전기금(한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8,236	26,531	국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86,732	261,126	국고
		외국인 학생기숙사	18,000	33,264	국고
	증축(1)	유전공학연구소	2,890	5,538	국고
리모델링(1)	사범관3(11동)	4,765	4,516	국고	
2014	신축(4)	IBK커뮤니케이션센터	2,659	5,000	발전기금(IBK기업은행)
		약대 신약개발연구센터	8,969	17,129	국고
		관정도서관	27,118	61,061	발전기금(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서울대풍산마당	879	5,200	발전기금(풍산)
	리모델링(2)	자연과학관6(24동)	6,963	7,660	국고
		공학관1(30동)	8,125	8,308	국고



편리한 e-Campus 이용환경 조성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여건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보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2011년 이후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관·개인의 정보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인프라(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전 분야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했으며, 특히 스마트&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IT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 미래지향적 교육·학술 정보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IT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주요 행정 업무의 모바일 처리를 제공하고 각종 캠퍼스 생활 정보를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
 - 모바일 서비스: (2010년) 0종 → (2014년) 107종
- 포털, 학사서비스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영문 콘텐츠 서비스 구현 완료를 통해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 서비스 제공 비율: (2010년) 25% → (2014년) 70%

|정보화 기반 인프라 확충

- 각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던 IT 자원을 통합하여 IT 자원 공동 활용 체제 강화
 - 61개 부서, 265개 학과 및 연구실의 1,000여대 정보시스템 통합
-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의 95%를 교체하여 향후 5~10년을 대비한 IT 운영 기반 확보
- 서버 시스템 및 통신망 자원의 증설을 통해 컴퓨팅 성능 2배 강화, 저장용량 4배 확충

|메일서비스 체계 개선

- 사용자 요구와 IT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메일 시스템 구축
 - UI 및 기본 기능 개선, Active X 사용 지양, 외국인을 위한 자동 번역 기능 추가 등
- 메일 서버 확충, 학생용 외부 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별 메일 용량 확대 제공
 - 교수(2Gb → 10Gb), 학생(500Mb → 외부 메일 50Gb)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강화

- 상시 정보보안 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사고의 90%를 사전예방하여 안전한 사이버 교육·연구 환경 제공
- 개인정보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서울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중앙도서관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학술자료 확충 및 서비스 개발에 힘써 왔다. 특히 범인 전환기였던 지난 4년간 첨단 database, e-journal 등 자료확충에 집중하였고, 서울대 연구업적물 아카이브인 S-Space와 ‘학술행사 VOD 서비스’ 등 서울대만의 특성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RFID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캠퍼스간 도서대출 및 도서반납함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중심형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2012년 10월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을 시행하였고, 학술자원의 통합 관리와 검색, 공유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를 도입하였다.

|학술자료 확충|

- 약 470만여 책의 장서와 10만여 종의 학술지로 국내 최고 수준·최대 규모의 장서를 갖추고 교수·학생 및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 기초학문분야의 특성화 장서, 세계적 수준의 인문 학술 DB 및 6천여 종의 핵심 학술지 아카이빙 구축

|연구지원 전문사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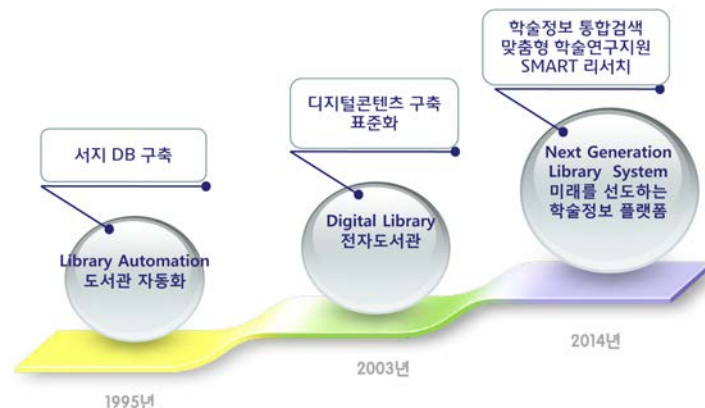
-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가 명실상부한 주제 전문서비스로 정착
- 선행연구조사, 학술정보 활용 교육, 교수진 연구성과 관리 위한 Researcher ID 등록서비스 및 Turnitin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이용 교육 등 다각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대 연구업적물 디지털 컬렉션(S-Space) 운영|

- 연구업적물 75,000건 탑재 및 자료 다운로드 누계 건수 320만 회(해외 이용률 15% 이상)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OSOS) 간 데이터 연계로 대학의 학술 연구 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

|특성화된 디지털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학술회의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영상 VOD 콘텐츠(6,050건)의 체계적 수집 및 서비스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 실천
- ‘디지털곤충표본관’, ‘사진자료관’, ‘고문헌’ 등 서울대학교만의 특성화된 디지털콘텐츠 501,198건 데이터베이스화



멀티캠퍼스 추진

국제화 및 미래 신생분야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캠퍼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멀티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핵심사업인 그린바이오 연구를 위한 평창캠퍼스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고 있으며, 융복합형 학문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시흥캠퍼스를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캠퍼스의 체계적인 발전과 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캠퍼스마스터 플랜(2012~2016)을 수립하였다.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캠퍼스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유형의 멀티캠퍼스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개념을 담고 있다

|미래핵심사업인 그린바이오 연구를 위한 평창캠퍼스 조성|

- 총사업비 및 면적: 3,118억원 / 2,780,539m²
-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로 산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도모

|국제화 및 융복합형 학문선도를 위한 시흥캠퍼스 추진|

-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2011년)
- 시흥캠퍼스 추진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 제3차 부속합의서 체결(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캠퍼스마스터플랜(2012~2016) 수립|

- 캠퍼스 관리의 원칙 및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 수행
-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 보존 지역 등을 및 개발 유보지를 설정하여 그린캠퍼스 조성

캠퍼스 마스터 플랜(2012-2016)



직장 보육시설 확대

서울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1998년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이 설립되었으나 학내 구성원의 보육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1년 9월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후 2012년 7월 본부 부속시설로 확대 신설하여 현재 어린이보육지원센터 백학어린이집(영아전담)과 느티나무어린이집(유아전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 ‘느티나무 어린이집’ 설립하여 확대 운영(2011년 9월)
- 본부 부속시설로 편입(2012년 7월)
- 2010년~2013년 이용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이용자수	193	192	30	156	259	164	246
계	193	222		415		410	

* 매년 9월 기준



2010년

- 07월 오연천 총장 취임
- 08월 서울대 평생교육원 1기 개강
외국인 구성원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할 'I-Office' 개소
제1회 미래인재학교 실시
- 10월 제16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AEARU) 연례회의
스누봉사단 창단
- 11월 외국인교수, 기금교수, 직원이 평의원회 참여
-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SNU 희망장학금 프로그램 시작

2011년

- 01월 서울대학교 글로벌봉사단 출범
- 03월 수요자 중심의 장학제도로 개편
- 04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서울대학교 보존도서관' 개관
사회봉사상 제정 및 제1회 수상자(공대 한무영, 의대 안규리 교수) 선정
- 05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발전위원회 출범
- 07월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 08월故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대학 전체 규모 첫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서울대학교 중국센터 개소
- 09월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개소
- 10월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법인정관 인가, 초대 이사·감사 선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12. 28.)
제1회 아시아대학포럼(AUF) 개최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012년

- 0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차 이사회
제1회 새내기대학 개최
- 02월 2012~2015 대학운영성과목표 및 2012년 대학운영계획 수립
제66회 학위수여식: 65년만에 학위복 변경 및 윤운수 휠라코리아 회장 축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 해리어트 발베리-헨릭슨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 03월 인문대 두산인문관 준공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개설
북경대 내 스탠포드센터 개소식 참석

- 04월 예일대 조너선 스펜스 교수 서울대 특강
- 05월 서울대-북경대 연석회의 개최
- 06월 열린강좌 SNUON 서비스 실시
SNU in Beijing 프로그램 실시
- 07월 인권센터 설립
학칙 전부개정 및 조직 개편 시행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정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창의선도연구자 선정(8명)
Max-Planck 연구소 클라우스 폰 클리칭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서울대 특강
- 08월 김종훈 벨연구소장 학위수여식 축하
- 09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중국 유학생 초청행사
- 10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 서울대 특강
- 11월 제16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연례회의 개최
- 12월 미래연구위원회 설치
법인 공채 1기 선발(45명)
제15회 서울대-훙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 참석

2013년

- 01월 제2회 아시아대학포럼(AUF) 공동주최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 개최
- 02월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
아시아연구소 준공
양진닝 칭화대 교수(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학위수여식 축하
- 03월 글로벌사회공헌단 출범
- 04월 제4회 고등교육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참석
MS 창업자 빌 게이츠 서울대 특강
세계은행과 MOU 체결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구축
- 05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나눔프로그램 협약 체결
글로벌 온라인 강의공개 서비스 'edX' 참여
관정도서관(제2도서관) 기공
- 06월 서울대-북경대 한중미래포럼 참석
제17회 환태평양 대학연합(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총장포럼 참석
- 07월 아시아개발은행과 MOU 체결
서울대학교-KAIST 간담회
- 09월 제1회 서울대 건강주간 개최
스웨덴 보건사회부 울프 크리스테르손 장관 서울대 특강
- 10월 The World Academic Summit 참석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 참석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서울대 특강

- 12월 글로벌창의융합연구자 선정(8명)
러시아 15개 대학 총장단과 교류협력 논의
제13회 베세토하(BESETOHA) 총장포럼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서울대 특강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서울대 특강
제15회 서울대-훗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
개최

2014년

- 01월 2014년 등록금 학부 및 대학원 각 0.25% 인하
사대 부설학교 법인 귀속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봉사백서 발간
- 02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아시아개발은행(ADB)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 서울대 특강
- 03월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영국왕립학회 회장 폴 넬스 노벨의학상 수상자 서울대 특강
캠퍼스마스터플랜(2012-2016) 수립
- 04월 동경대에 서울대학교 사무소 개소
- 05월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서울대 특강
- 06월 제26대 총장 최종후보자 선출
서울대 평창캠퍼스 준공
- 07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서울대 특강

VISION
&
CHANGE

2010 - 2014

서울대학교 기획처 (홍보팀)

2014년 7월 18일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